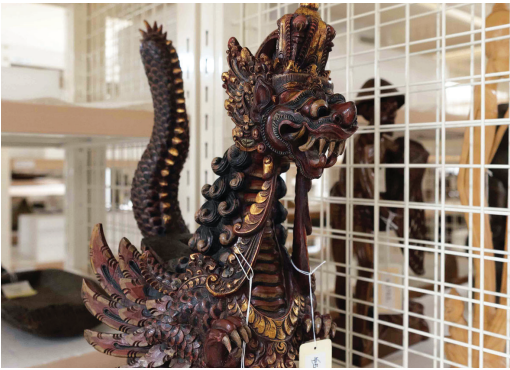


ACC 수장고·소장품 둘러보니

4개 수장고 총 1만9000여점 보관
인니 누산타라 컬렉션 7715건 최대
개관 10주년 맞아 세계와 교류 확대
▶ 문화자원 수집·보존·연구 박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15일 지하 4층에 있는 '아시아 문화의 보고'인 수장고를 공개했다. 수장고에 있는 다양한 소장품들(왼쪽)과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컬렉션. <ACC 제공>



ACC ‘비밀의 공간’이 열렸다

‘아시아 문화의 보고’ 다양한 소장품을 만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 지하 4층에 자리한 수장고. 인솔하는 직원들을 따라 들어선 아시아박물관 내 수장고는 비밀 지하요새 같았다. 어림잡아 네 번의 출입문을 통과해 당도한 곳에는 다양한 소장품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아시아문화박물관의 수장고는 아시아 문화를 토대로 한 창작 소재의 보고(寶庫)다. 소장품들의 변형과 훼손을 막기 위해 일정한 온도·습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는 선선하고 쾌적했다. 그러나 자료들이 대규모로 보관돼 있는 탓에 오래된 서적에서 배어나오는 특유의 냄새가 났다.
15일 ACC가 처음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수장고를 공개했다. 그동안 일반인에게 수장고가 공개된 적은 없었던 터라 아시아 각국에서 수집, 기증된 자료들은 특유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ACC는 지난 2017년 전문박물관인 아시아문화박물관을 통해 전시, 교육 및 학술적 조사·연구 등 관련 유·무형의 자료를 수집해왔다. 전통문화를 비

롯해 의복, 음식문화, 음악, 공연, 공예, 종교, 신화, 설화, 건축, 세계유산 등 자료도 다양하다. 수장고는 다양한 문화권 자료들의 집합소이자 문화의 응결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유무형 자산에 대한 지식과 문화 원천소스로 활용된다. 전시와 공연은 물론 교육, 연구, 문화사업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전환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장고(收藏庫)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소장품들을 보관하는 일정한 공간을 일컫는다. ACC는 현재 DB화를 비롯해 아카이브 등록 작업, 간단한 유물의 복원도 하고 있다.
현재 수장고에는 인도네시아 민속자료인 누산타라 컬렉션이 7715건(1만2258점)으로 최다를 차지



ACC 지하 4층에는 창제작센터가 있다. 작품을 시연 중인 장면.

한다. 제국주의시대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수집한 16-20세기 관련 자료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식민지배 종료 후 본국으로 옮겨 델프트문화재단 산하에 누산타라박물관을 설립 운영했지만 방문객 감소 등 재정문제로 박물관이 2013년 폐관됐다.
누산타라 컬렉션은 ‘데위스리’, ‘잔디 분타르’, ‘주전자’, ‘프라후’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은 품목은 그림자 인형극에 활용되는 와양 컬렉션이다.
박재상 학예관은 “누산타라박물관 폐관과 맞물려 그와 관련된 유물이 전 세계에 배분됐다. 당시 수증 박물관의 조건은 2층 전문박물관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ACC의 문화홍보교류과와 아시아문화박물관 협업을 매개로 다양한 자료를 받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장고에는 아시아 지역별 소장품들이 구분돼 있다. 동남아시아 자료가 가장 많고 이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순이다.
수장고는 모두 4개로 구성돼 있다. 수장고1(265㎡)과 수장고2(277㎡)는 아카이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가 구입·기증된 아카이브 기관 자료인데 반해 후자는 전문주체의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수장고3(457㎡)은 누산타라 컬렉션 가운데 목재, 직물 등 유기물이 주를 이루며 수장고4(84㎡)는 금속, 석재 등 무기질 자료들이다.
김상욱 전당장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ACC는 아시아 관련 문화자원의 수집, 보존,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등 각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며 “향후 10년 후 아시아 문화자료 분야 만큼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ACC가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장고 탐방 외에도 지하 4층에 자리한 창제작 센터를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곳은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콘텐츠 창작·산실로 창작과 제작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창제작 스튜디오(기계조형, 복합, 미디어)를 갖추고 실물 콘텐츠를 제작하며 예술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창조적 인재들이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고 연구, 제작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름다운 풍경 화폭에 ‘길따라 남도기행’

오창록 개인전, 20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길에서 만난 다채로운 남도 풍경.
길을 걷다 보면 무수히 많은 존재들과 조우하게 된다. 사람도 있지만 풍경 외에도 다양한 생명들을 만난다.
그 가운데 풍경은 길에서 보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다. 유순한 산하, 풍성한 물길, 넉넉하고 너른 들, 계절에 따른 각양각색의 모습은 남도만이 지닌 고유한 풍경이다.
오창록 작가는 자연 현장에서 담아낸 드로잉과 이를 토대로 회화를 화폭에 담아왔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에서 오는 20일까지 진행 중인 오창록 작가의 ‘길따라 남도기행’은 그동안 작가가 길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남도 풍경을 볼 수 있는 자리다.
‘기다림-칠석동 은행나무’는 노란 은행잎이 무성한 가을날의 은행나무를 형상화한 그림이다. 마치 성대한 여인의 모습처럼 노란 옷을 잘 차려입은 나무

는 신비로우면서도 친근하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나무는 마을사람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관람객들에게는 수호신이라는 영험한 존재로 인식된다.
‘무등에서 광주전까지’ 작품은 ‘광주의 모산’ 무등산은 물론 산의 품에서 이어져 온 광주전까지를 집약한 그림이다. 광주의 정체성과 역사가 투영된 수목 담채는 자애로운 무등의 산자락, 누정, 옛 성터, 천변의 버드나무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풍경을 포괄한다.
오창록 작가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남도 자연을 화폭에 담은 여정을 관람객들과 나누는 시간”이라며 “남도가 지닌 아름다우면서도 넉넉한 풍경과 정취를 감상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문화재단의 전시공간지원사업의 5회차 전시로 기획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등에서 광주전까지’

실내악 앙상블 콰르텟 아인스, 평화를 연주하다

오늘 광주예술의전당

격동의 시대, 음악은 때때로 가장 조용하고 강한 위로가 된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구성된 실내악 앙상블 콰르텟 아인스(Quartet EINS·사진)가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평화’. 부드러운 현악 선율을 따라 전쟁과 사랑의 서사를 그려낸다. 연주곡은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와 알렉산드르 보로딘의 대표적인 현악 4중주로, 두 작품 모두 동유럽 민족 선율을 바탕으로 시대의 격랑을 통과한 예술가들의 내면을 담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폭력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인류애를 그려낸 러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부에서는 프로코피예프의 현악 4중주 제2번 F장조 ‘카바르디나인’이 연주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피난지였던 카프카스 지역의 민속음악에서 영감

을 받은 작품이다. 민족 리듬과 선율이 색채감 있게 담긴 곡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힘을 상기시킨다.
이어지는 보로딘의 현악 4중주 제2번 D장조는 작곡가가 아내에게 헌정한 작품으로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다. 특히 3악장 ‘녹턴’은 러시아 실내악 중에서도 가장 서정적인 선율로 손꼽힌다.
올해 초 창단한 콰르텟 아인스는 제1바이올리니스트 이수연, 제2바이올리니스트 김소연, 비올리스트 엄광용, 첼리스트 이후성 등 광주시립교향악단 소속의 현악 연주자 4인으로 구성된 단체다. 수준 높은 실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연주자들이 깊은 호흡과 앙상블로 실내악의 진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콰르텟 아인스는 “음악이 시대를 초월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광주에서 들려드리고 싶었다”며 “관객의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울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경기소리의 물결, 남도로 흐른다

국립남도국악원, 19일 경주시나위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진악당에서 오는 19일 ‘그라데이션-G’가 펼쳐진다. 초청공연을 선보일 경주시나위오케스트라의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전통음악의 선율이 남도의 무대를 물들인다. 국립남도국악원(국악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진도 국악원 대극장 진악당에서 경주시나위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그라데이션-G’를 선보인다.
1996년 창단한 경주시나위오케스트라는 경기도의 전통 음악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폭넓은 협업과 실험을 이어온 예술단체다. ‘미래에 남을 오늘의 음악’이라는 모토 아래, 전통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무대에서 연희, 민요, 산조 등 국악의 다채로운 얼굴을 한자리에서 펼쳐낼 예정이다.
공연의 막은 타악 협주곡 ‘하늘의 울림’ 3악장이 연다. 이후 이태백류 아쟁산조 협주곡과 국악 관현악곡 ‘새놀음’, 노랫가락·청춘가 등 민요 모

음이 차례로 이어진다. 또 진도 출신 고(故) 박병천 명인의 아들로 전 부산대 교수이기도 한 박환영 명인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박명인이 연주하는 박종기제 대금산조 협주곡 ‘시공(時空)’, 국악관현악 ‘고래의 꿈’이 관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악원은 공연장을 찾는 이들을 위해 관람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박정경 국악원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지역과 세대를 넘나드는 국악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체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통해 지역민들이 국악을 쉽고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람료 무료. /장혜원 기자 hey1@

시립미술관, 포럼·아카데미 ‘삽질과 디깅’ 18일 두번째 강좌

세계 미술 시장의 트렌드와 맞물린 한국 미술 시장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 특히 국내 아트페어의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
국제적인 미술 시장의 흐름에 따른 한국 미술 시장의 현실을 살펴보는 강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2025 포럼·아카데미 ‘삽질과 디깅’ 두 번째 강좌로 ‘미술시장의 흐름과 unbalanced 한국미술시장’을 마련했다. 오는 18일 오후 3시 시립미술관 본관 세미나실. 명지대 미술사학과 조병계 특임교수가 강사로

나서 세계 미술시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국 미술시장을 가늠한다.
조 교수는 강좌에서 1940년대를 기점으로 미술시장이 추상표현주의, 팝아트와 같은 뉴욕 아방가르드를 수용하기 시작했던 과정, 미디어와 AI 기술과 연계된 국제 미술시장의 이모저모를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본다. 또한 한국 미술시장과 국내 아트페어의 상황, 오는 2026년 계약 종료로 앞둔 프리즈의 향방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